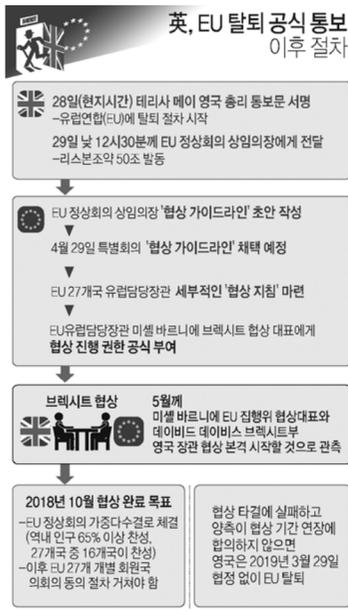


# 영국, EU에 '이혼' 공식 통보... 위자료 72조원이 변수

(브렉시트)

메이 총리, 투스크 EU의장에 통보문 합의 안되면 '질서 없는 브렉시트' 佛, 獨 선거·FTA 협상 등 쟁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총리관저에서 도널드 투스크 유럽이사회 의장에게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통보하는 서한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8일(현지시간) EU 탈퇴를 시작하는 통보문에 서명했다. 이 통보문이 29일 낮 12시 30분(한국시간 29일 밤 8시 30분) 벨기에 브뤼셀 EU본부 주재 영국대사를 통해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전달된 순간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절차가 공식 시작됐다. 작년 6월 국민투표에서 영국인이 52% 대 48%로 브렉시트를 선택한 지 9개월 만이다. EU 정상들은 내달 29일 특별회의를 열고 브렉시트 협상 가이드라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EU 유럽당장관들이 세부적인 협상 지침을 마련해 승인하고, EU 집행위원회 브렉시트 협상 대표에게 협상 진행을 위임하는 후속 절차를 거친다. 이에 따라 오는 5월께 프랑스 정치인 출신의 미셸 바르니에 EU 집행위 협상대표와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영국 장관이 테이블에 마주앉아 협상을 본격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탈퇴 조항인 리스본조약 50조는 통보 시점으로부터 2년간 제반 관계를 다시 정하는 협정 체결을 규정한다. 양측은 내년 10월까지 협상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영국 의회와 유럽의회 동의, EU 정상회의 승인 기간을 고려한 일정이다. 협정은 EU 정상회의의 가중다수결(역내 인구 65% 이상 찬성하고 27개국 중 16개국이 찬성)로 체결된다. 이후 EU 27개 개별 회원국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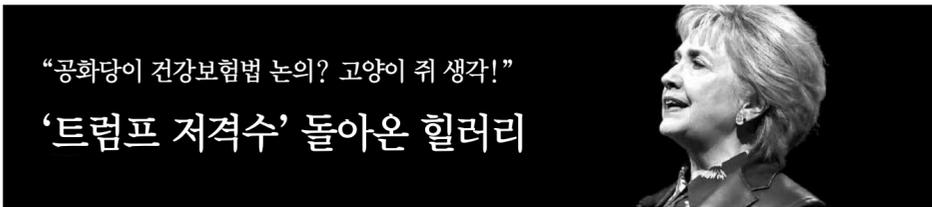
협상 타결에 실패하고 양측이 협상 기간 연장해 합의하지 않으면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협정 없이 EU를 탈퇴하게 된다. '질서 없는' 브렉시트를 맞는다. 메이 총리가 서명한 통보문은 7~8쪽 문서일 것이라고 일간 텔레그래프는 보도했다. 메이 총리는 통보문이 전달되는 시간에 하원에 출석해 연설할 예정이다. 언론이 사전 입수한 연설 발췌문에 따르면 메이는 "EU를 떠나기로 한 결정은 내려졌다. 이제는 함께 할 때"라며 통합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협상에서 영국 전체의 모든 이를 대변할 것"이라며 "이 나라의 모든 이를 위한 올바른 협상을 얻는 게 나의 강력한 결의"라고 말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이 사전 입수한 연설 발췌문에 따르면 메이는 "EU를 떠나기로 한 결정은 내려졌다. 이제는 함께 할 때"라며 통합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협상에서 영국 전체의 모든 이를 대변할 것"이라며 "이 나라의 모든 이를 위한 올바른 협상을 얻는 게 나의 강력한 결의"라고 말할 것으로 알려졌다.

FTA 협상도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메이 총리는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도 이탈하고 대신 FTA를 통해 EU 단일시장에 대한 최대한의 접근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특히 영국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서 핵심 영역인 금융산업은 직격탄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도 이탈하고 대신 FTA를 통해 EU 단일시장에 대한 최대한의 접근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특히 영국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서 핵심 영역인 금융산업은 직격탄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도 이탈하고 대신 FTA를 통해 EU 단일시장에 대한 최대한의 접근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특히 영국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서 핵심 영역인 금융산업은 직격탄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도 이탈하고 대신 FTA를 통해 EU 단일시장에 대한 최대한의 접근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 “트럼프 ‘빅브라더’ 숨 막혀” 미국 ‘영화 1984’ 재개봉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반 이상향) 소설 '1984'를 스크린에 옮긴 동명의 영화가 미국 내 43개 주, 165개 도시에서 다음달 초부터 재개봉된다. 영화 '1984'는 1984년 제작된 후기 버전이다. 초기작은 1956년에 제작됐다. 미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미국 영화·예술단체의 후원을 받아 이 영화가 다시 스크린에 걸린다고 28일(현지시간) 전했다. 영화·예술단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과 국토안보 비용을 크게 증액한 '트럼프프 하드파워 예산안'으로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키로 한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영화 재상영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웨스트할리우드와 샌타모니카, 해머뮤지엄의 빌리 와일더 극장 등에서 상영한다. 캐나다, 영국, 스웨덴에서도 이 영화가 다시 개봉된다. /연합뉴스

## “공화당이 건강보험법 논의? 고양이 쥐 생각!” ‘트럼프 저격수’ 돌아온 힐러리



대선에서 패배한 후 처음으로 대중연설을 한 힐러리 클린턴(사진) 전 미국 국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은 28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수천 명의 여성 경영인 앞에서 연설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현 행정부의 여성 고위 공직자가 한 세대 만에 최저라며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클린턴은 남성만으로 이뤄진 공화당 의원들이 건강보험법의 여성 혜택을 논의하는 사진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질겅했다며, 이는 마치 개들만으로도 이뤄진 패배의 고양이를 어떻게 돌볼지 의논하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손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의 행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안 커넥션'에 대한 자신의 답변에 흑인 여기자가 고개를 가로챘자, 불쾌한 듯 "다시는 고개를 가로챘지 말라"고 요구했다. 클린턴은 "너무나 많은 여성이 평생 이러한 모욕을 겪고 있다"며 여성들에게 이에 굴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계속 갈 것을 촉구했다. 클린턴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의제였던 '트럼프케어'가 하원 표결에도 부쳐지지 못하고 무산된 것을 거론하며 이는 '모든 미국인의 승리'라고 선언했다. 그는 난

민 문제나 유권자 탄압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에 저항할 것을 유권자들에 촉구하며 "이들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 나라를 그릇된 길로 이끄는 나쁜 정책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항하고, 주장하고, 버티고, 참여하라"고 외친 이날 클린턴의 연설에 청중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힐러리 클린턴은 대선 패배 후 공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가끔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산책하는 모습만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이날 한 모임에서 "이제 숲 밖으로 나올 준비가 됐다"며 앞으로 공적인 문제에 대해 다시 발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김정남 시신 오늘 반출... 행선지는 오리무중

말레이 언론 밝혀

김정남의 시신이 조만간 북한에 인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시신이 30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으로 이송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중문어 매체인 동방일보(東方日報)는 29일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남의 시신이 30일 아침 쿠알라룸푸르 종합 병원 국립법의학연구소(IPFN)에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화물운송센터로 옮겨진 뒤 해외로 반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김정남 시신이 26일 오후 IPFN에서 쿠알라룸푸르 시외곽의 한 장례시설로 옮겨졌다가 27일 오전 공항 화물센터에 이송된 뒤 부패가 급격히 진행됐고 보안 문제도 제기돼 인도 계획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현지 중국보(中國報)는 김정남 시신의 추가 방부처리와 관련해 말레이시아 보건부 당국자가 28일 낮 IPFN 영안실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다만, 김정남 시신의 행선지와 관련해서는 현지 언론 보도가 엇갈리고 있다. 동방일보는 김정남이 피살되기 직전까지 머물렀던 중국령 마카오로 시신이 옮겨질 것이라고 한 반면 중국보는 김정남의 시신이 중국 베이징을 거쳐 평양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남의 둘째부인 이해경씨와 한솔·솔희 남매가 있는 마카오와 북한 인도로 관측이 다르다. 김정남 암살과 상대 국민 역류사태와 관련해 북한과 비공개 협상을 해온 말레이 정부가 지난 27일 공식 성명을 낼 것으로 전망됐지만 관련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현지에서 말레이시아와 북한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시신 부패 등 기술적 문제 때문에 이항이 지연되고 있다는 설과 양측의 협상이 막판에 난항에 부딪혔을 것이라는 얘기 등 여러갈래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말레이 정부는 북한 내에 억류된 자국 외교관과 가족 9명의 출국이 확인된 이후 에나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 경, 공매 컨설팅

#### 경매 추천물건

- ★ [숙박시설] 전남 화순군 북면 서유리 실버타운 요양원 적합부지 토지 3,613㎡ 건물 2,752.77㎡ 감정가 12억9천3백 ▶ 최저가 7억2천4백
- ★ [공장]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초등학교 인근 일반공업지역 토지 1,653㎡ 건물 1,384㎡ 감정가 11억9백 ▶ 최저가 7억8천
- ★ [의료시설]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NPL가능 토지 11,546㎡ 건물 5,734㎡ 감정가 48억8천6백 ▶ 최저가 21억8천9백
- ★ [공장] 광주 북구 양산동 해태제과 광주공장 남측 일반공업지역 토지 3,653㎡ 건물 3,971㎡ 감정가 39억2천2백 ▶ 최저가 27억4천5백
- ★ [대지]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4,494㎡ 계획관리지역 무인텔건축 최적할지 감정가 10억3천3백 ▶ 최저가 5억7천8백
- ★ [무인텔] 광주 광산구 쌍암동 객실 28개, 토지 1,373㎡ 건물 1,908㎡ 감정가 45억 1천만 ▶ 최저가 31억5천만

####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573㎡ 건물 2,215㎡ 매매 41억 (보3억3천만 월1천7백80만 포함)
- ★ [건물] 북구 신동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 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건물] 북구 용동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상가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병원 상가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7층 대지 602㎡ 건물 2,830㎡ 매매 55억 (보5억2천만 월2천4백20만 용25억포함)

####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종 투자적합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 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만
- ★ [토지] 전남 담양 용면 전원주택 조성단지 토지 8,324㎡ 보전관리지역 분할가능 실수요·투자기치 높음
- ★ [토지] 전남 봉산면 기곡리 광주에서 15분거리 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2,045㎡ 카페, 커피숍, 전원주택부지 적합
- ★ [토지] 전남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계획관리지역 전, 답 34,085㎡ 분할매수가 매매가 상당후결정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계획관리지역 전·대·임야 52,299㎡ 평당5만 (협의가)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